

2015학년도 제5차

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7인	2인
재적임원	7인	2인
참석임원	7인	0인

1. 일 시 : 2015. 12. 28.(월) 16: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5.12.15.(화)]

2. 장 소 : 동보성(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3)

3. 임원 출결 현황

구분		인원	참석인원
참석 임원	이사	7	배인호, 이희영, 김정길, 허용, 김병호, 차창식, 박윤규
	감사	0	
결석 임원	이사	0	
	감사	2	이위부, 이희경

4. 배석자

- 법인사무국 : 최승기(국장) 하병제(담당)
- 대구예술대학교 : 임채경(교무처장), 전도희(사무과장), 이상명(평생교육원), 김광진(교원인사담당)

5. (안건)

제 1호의 안 : 교원 재임용 제청

가. 교원 재임용 제청

나. 김영욱 교수 재임용 건

제 2호의 안 : 학교법인 세기학원 교직원 복무규정 개정의 건

간 서 명	배 인 호	김 정 길	김 병 호
-------------	-------	-------	-------

- 제 3호의 안 : 대구예술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의 건
- 제 4호의 안 : 2015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 제 5호의 안 : 2016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예산(안)의 건
- 제 6호의 안 : 기타 안건(법인 재정여건 개선 계획의 건)

6. 회의내용

가. 개회

- 배인호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재적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2015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가 개최됨을 선언하다.

나. 전 회의록 수리

- 배인호 이사장이 하병제 담당에게 전 회의록 낭독을 요청하여, 낭독 후 차창식 이사의 동의와 김병호 이사의 제청이 있어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수리되다.

다. 대학 현황 보고

- 배인호 이사장이 김병호 총장에게 대학 업무보고를 요청하자, 김병호 총장은 2016학년도 수시 모집결과 예년과 비슷한 추세이나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정시 모집에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총원할 것이라고 하다.

라. 안건 심의

가. 교원 재임용 제청

- “이사장” 이 “교원재임용 제청의 건” 을 발의하고, 배포된 안건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상명 계장이 배포된 자료의 명단과 같이 재임용 대상자는 사진영상전공 김대욱교수 외 총 21명이며, 이중 교수업적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복무평정 평균점을 충족한 교원이 19명이고, 복무평정 평균점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이

그리고 의 교수 등 3명이 있다고 하다. 복무평정 미

간 서 명	배 인 호	김정민	김 병 호
-------------	-------	-----	-------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에 대하여 패소하였다고 하고, 신입생 모집중지 등과 관련하여 폐전 공되거나 학생이 없어 해임할 경우 전공전환 또는 해고 회피노력을 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대구예술대학교의 경우에는 미흡하였다고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다.

- 이사 상호간의 심의를 거쳐 검토와 논의 후 “이사장” 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향후,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김영욱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9.1.자로 재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차창식 이사의 동의와 김정길 이사의 제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 없으므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2호의 안 : 학교법인 세기학원 교직원 복무규정 개정의 건

- “이사장” 이 “학교법인 세기학원 교직원 복무규정 개정의 건” 을 발의하고, 배포된 안건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전도희 사무과장이 기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동안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가 관련 조항을 조정하였다고 하고, 특히,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중의 여성의 출산휴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다.
- 이사 상호간의 심의를 거쳐 검토와 논의 후 “이사장” 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관련 법과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세기학원의 교직원 복무규정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병호 이사의 동의와 차창식 이사의 제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 없으므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3호의 안 : 대구예술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의 건

- “이사장” 이 “학교법인 세기학원 교직원 복무규정 개정의 건” 을 발의하고, 배포된 안건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전도희 사무과장이 국가공무원법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2008년 6월부터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정년을 통일하여 실시하고 있고, 인근 사립 종합대학교에서는 61세까지 정년을 연장한 경우도 있으며 연금 적용이 65세부터 적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향후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

간 서 명	채 인 호	김 정 길	김 병 호
-------------	-------	-------	-------

려되고 있다고 하다.

- 이사 상호간의 심의를 거쳐 검토와 논의 후 “이사장” 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사립대학교의 추세라 하고, 대구예술대학교도 정년을 60세로 통일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병호 이사의 동의와 차창식 이사의 제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 없으므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4호의 안 : 2015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 “이사장” 이 “2015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건을 발의하고, 기 배포된 안건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자, 하병제 담당이 “2015학년도 법인 일반회계추가경정 자금예산서 내역(안)” 을 보며, 냉난방기 구입 및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추경예산 총액은 39,800,000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다.
- 이사 상호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후 이사장” 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예산상 세입부에 따라 세출부의 관항목 지출에 무리없이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음을 참석 이사 상호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차창식 이사의 동의와 김정길 이사의 제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5호의 안 : 2016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예산(안)의 건

- “이사장” 이 “2015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자금예산서(안)” 건을 발의하고, 기 배포된 안건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자, 하병제 담당이 “2016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자금예산서 내역(안)” 을 보며, 증감된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2016학년도 예산총액은 “전입 및 기부수입” 감소와 “교육외 수입” (이자수입)의 감소 영향으로 19,278,000원이 축소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사 상호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후 이사장” 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예금이자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이고, 기부수입은 변동의 소지가 많은 항목이므로 지나치게 계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며, 전체적으로 보아 예산상 세입부에 따라

간 서 명	채인호	김정길	김병호
-------------	-----	-----	-----

세출부의 관항목 지출에 무리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참석이사 상호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차창식 이사의 동의와 김정길 이사의 제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6호의 안 : 기타 안건(법인 재정여건 개선 계획의 건)

- “이사장” 이 기타 안건으로 “법인 재정여건 개선 계획” 에 대하여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하고, 법인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과 주차장 수익금 및 기타 교육외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금 수입의 감소와 주차장 용역인력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고 수입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다.
- 차창식 이사는 적립금에 대한 금융권의 이율은 매년 하락하였던 것이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2016년도에는 예금이자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나, 적립금을 펀드 등 다른 형태로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형식의 운영이 현재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다.
- 김정길 이사는 차창식 이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고, 적립금 운용에 대해서는 펀드투자 보다는 현재의 방법이 더 안정적이라 보며,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 시설을 전자식으로 개선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교육외 수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이사 상호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후 이사장” 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적립금은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기타 교육외 수입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법인사무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하기로 하자는 차창식 이사의 동의와 김정길 이사의 제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간 서 명	차 창 식	김 정 길	김 병 호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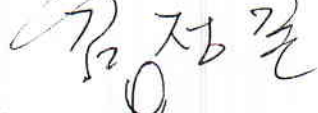




폐회선언

상기 회무를 마치고 이사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장이 2015학년도 제5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날인
하다.

2015. 12. 28.

참석임원

이사장	배 인 호 (인)	
이 사	이 희 영 (인)	
이 사	김 정 길 (인)	
이 사	허 용 (인)	
이 사	김 병 호 (인)	
이 사	차 창 식 (인)	
이 사	박 윤 규 (인)	

작성자 : 하 병 제 